

“이 버스 안에서 진료 받는 거예요?”

‘한 인물이(閑人勿事)’. 선원이나 강원 앞에 걸린 팻말에서 볼 수 있는 문구다. 일 없는 사람은 들어오지 말라는 뜻이다. 불 때마다 참 뜬꿈한 말이 아닐 수 없다. 용맹정진의 길을 한 치도 막지 말라는 사릿발 같은 경고로 들린다. 그런데 평소에는 좀처럼 외부인의 출입을 허락지 않던 강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 그것도 사미니 승가대학으로 이름 높은 김천 청암사의 문이, 반기운 친구를 맞이 위해서다.



‘반갑다 연우야’ 의료지원버스 내부.

“자, 다 왔습니다. 이제 다리만 건너면 돼요.” “통과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큰 버스가 지나가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

경북 김천과 경남 거창의 경계에 자리 잡고 있는 불령산을 굽이굽이 올라온 대형버스가 마지막 관문인 청암사 다리를 간신히 건넜다. 꼭두새벽부터 서울을 출발해 청암사를 찾은 이들은 조계종 중앙신도회(사)날마다좋은날과 동국대 일산불교병원이 의료협약을 맺고 발족한 ‘반갑다 연우야’ 의료지원단이다.

지난 4월 의료소외지역인 농어촌 지역과 일반 산업현장, 외국인 노동자, 전국 사찰과 신행단체에 무료진료봉사활동을 펼치기 위해 발족한 최초의 불교계 연합의료지원단인 ‘반갑다 연우야’가 첫 무료진료봉사활동을 펼치기 위해 6월 17일 청암사를 찾은 것이다.

이날 봉사에서는 지난해 중앙신도회가 2억여 원을 들여 구입한 대형의료진진차량도 첫 선을 보였다. ‘반갑다 연우야’ 의료진이 타고 온 이 차량은 45인승 버스를 개조한 것으로, 기초체력, 시력·청력, 혈압, 혈액, 심전도 검사 및 흉부 X-ray를 찍을 수 있는 각종 의료장비와 자가발전기를 갖추고 있다.

■ 높은 혈당 수치에 깜짝...“주스만 마셨는데”

고분담 옆에 입시진료소가 세워지고 동국대 일산 불교병원 불자회 ‘연우회’ 소속의 한의사와 의사, 간호사 2명과 재활사 등으로 이루어진 의료지원단이 진료를 시작하자, 조용하지만 하던 도량에 순식간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고참 학년 순서대로 대교과에서부터 사교, 사집, 치문 순서로 서 있던 학인들은 호기심을 참을 수 없는 듯 “이 버스 안에서 진료를 받는 거예요?” “내년에도 또 오나요?” “연우(蓮友)가 뭐예요?” 질문이 계속 이어진다.

한 학인은 혈당검사에서 너무 높은 수치가 나온 것을 보고 놀라는 의사에게 “검사 한 시간 전부터 음식 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 음식은 안 먹고 과일주스만 마셨다”고 답했다. “주스는 당도가 높기 때문에 혈당 검사 전에 마셔서는 안된다”는 의사의 설명에, 그 학



6월 17일 김천 청암사에서 제1회 무료진료봉사활동을 펼친 ‘반갑다 연우야’ 의료지원단과 자원봉사자들이 청암사 비구니스님들과 한마음이 됐다.



단연 인기 있는 한방진료.

인은 재검사를 위해 한 시간 후에 다시 돌아왔다. 대교과 학인들은 여유로운 편이다. 따끔따끔한 채혈 때 비명을 지르는 동료 학인들에게 “아프지도 않구만 엄살을 부려!”라고 호통을 치는가 하면, 처음부터 의료진에게 “난 요거 안하고 한방진료만 할 건데요”라고 당당하게 선언하기도 한다.

반년 승가대학 1학년 치문반 학인들은 진료를 기다리는 와중에도 경전을 외우느라 바쁘다. 손바닥만한 노트에 빼곡히 적힌 한자를 외우며 진료를 기다리던 선일 사미니는 “강원에 있으면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 방학이 아니면 좀처럼 진료를 받을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와 주시니 감사하다”고 말했다.

의료진 뒤에서는 ‘반갑다 연우야’ 소속 자원봉사자 5명이 의약품을 챙기고 의료진을 돕느라 바빴다. 황재운 자원봉사단장은 “(사)날마다좋은날에서 활동하던 자원봉사자 중 15명이 ‘반갑다 연우야’ 활동을 위해 따로 자원봉사단을 꾸렸다”며 “의료지원봉사를 펼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보훈병원에서 호스피스 교육도 따로 받는 등의 준비를 해왔다”고 밝혔다.

■ 산간벽지 주민들도 찾아간다

오후 6시까지 계속된 의료봉사활동은 주지 상덕 스님과 강주 지형 스님이 진료를 받고서야 끝이났다. ‘반갑다 연우야’ 김응중 단장(동국대 일산불교병원 흉부외과 교수)이 “전반적으로 스님들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 다만 장시간 수행에 몰두하다보니 위장장애가 약하고 관절염이 있는 스님들이 몇 분 계시었는데 꼭 동국대병원에 들려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지형 스님은 “‘반갑다 연우야’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며 “이런 기회를 통해 수행에 매진하는 스님들이 자신의 몸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병원을 찾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덕 스님은 “앞으로 ‘반갑다 연우야’가 산간벽지의 사찰을 찾을 때 사찰지주님들께 함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면 더욱 뜻 깊을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진료를 마치고 석양을 받으며 다시 서울을 향해 출발하는 ‘반갑다 연우야’ 의료버스를 향해 청암사 스님들은 다리 너머까지 배웅을 나가며 오래도록 손을 흔들었다.

김천/글=이은비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반갑다 연우야’ 김천 청암사 강원서 첫 의료봉사



진료를 기다리면서도 경전삼매에 빠진 학인들.



학인들이 질서정연하게 진료카드를 작성하고 있다.



비구니스님들의 편의를 고려해 대중방에서 진료가 진행됐다.

중앙신도회서 2억 들여 구입한
대형의료진진 차량 첫선
기초체력 측정 시작으로
혈액·혈압·심전도·X-ray검사

1학년 치문반 학인들은
진료 기다리는 동안에도 경전 삼매
“공부하느라 시간없어 건강 못 챙겼는데
여기까지 와 주니 매우 감사”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열침의 등 은행석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 의료기기 개인용 인증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전자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전 인증서 : HH07236-5004A호

건강에도 최고!
선물로도 최고!
생명의 빛
건강의 기

- 삼성화재 배상보험가입
- 특허청 실용심안출원
- 전자파 장애실험필

가격 245,000원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원칙외선 “침”의 효능/신비로운 은행석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며 북한3대 특산품의 금강약돌이 주 성분인 최고의 기능성 건강 치료기 은행석 온열복대는 34개의 금강약돌 불이 70~80°C이상의 고열이 발생 화상 없이 뱃속 깊숙이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침투하여 원칙외선 “침”을 맞는 효능으로 속쓰림보다 간편하며 효과적인 복대방식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도 복대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만 있어도 장속의 노폐물 배출, 허복부 지방분해, 소화불량, 만성 위염, 장염, 변비, 생리통, 냉대하등을 자연 치료력 하며 당뇨 및 상기능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우수한 의료기기입니다.

날씨가 더울수록 배(오장육부)는 차가워 집니다

원칙외선 “침”의 효능/가격은 최저 효능은 최고
오장 육부를 치료함에 있어 속쓰림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은행석 온열복대는 고열의 원칙외선 “침”이 뱃속 깊숙이 침투 뜨겁게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는 신비한 제품으로 허리, 발바닥온열 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안전하고 편리한 다용도의 은행석 온열복대는 꾸준히 사용하시면 건강도 지키며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고 장수합니다.

암을 예방하는 WBH 치료법을 응용한 은행복대
미국, 독일, 일본등에서 처음 시도되었던 FIRWBH(원칙외선 전신온열)이 최근 한국 암재활 센터에서도 소개되고 있다. 환자의 전신을 42°C까지 가온시켜 1시간동안 유지하는 과정에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여 치료하기도 하며 약물요법과 병행으로 암치료 효과를 높여주는 치료방법이다.

은행석 온열복대는 80°C의 고열이 발생 원칙외선이 뱃속 깊숙히 침투하여 체온까지 42°C의 열을 가온시키는 의료기기입니다.

문의전화 : 닥터금강 (02)3210-3178,9 www.dk21.net ◆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영영 ◆ 당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